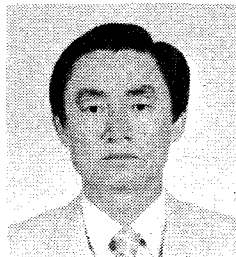


이런 症狀일땐 의심하십시오



최윤식
<서울의대>
<내과교수>

심계항진은 정신적 긴장, 흥분, 커피, 흡연, 과음, 운동, 약물 등으로 쉽게 발생하므로 이들 유발원인들과 심계항진과의 관련성이 증명되면 이들 유발원인들은 피하여야 한다.

현기증이나 실신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현기증(어지러움증)이나 실신(의식을 잃음)이 나타난다.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뇌혈관질환으로써 대부분이 뇌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발생되어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막힘으로 현기증이나 실신이 나타난다. 이 경우는 뇌졸중(중풍이라고 부르며 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혈관수축 부전으로써 갑자기 일어나거나 운동시 하지 혈관 수축에 장애가 있어 혈압이 떨어져 정신을 잃게 된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함으로 예방될 수 있다.

세째는 심장질환으로써 대동맥판막협착증, 심낭염, 심장종양 등도 있으나 가장 많은 원인은 서맥성 부정맥 및 빈맥성 부정맥이다. 서맥성 부정맥인 경우 환자는 안정시나 운동시 현기증이나 실신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운동시 호흡곤란을 느끼기도 한다. 빈맥성 부정맥인 경우 환자는 현기증이나 실신외에 심계항진, 흉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서맥성 부정맥이나 빈맥성 부정맥은 환자가 맥박을 만져봄으로 정상(1분에 60~100회)보다 느리거나 빠름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정맥들은 급사의 대부분 원인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신부종

심장병이 심하여져 심장기능이 저하되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혈액공급이 안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흉통은 몇가지의 특징이 있다. 즉 흉중부위는 대부분 가슴 중앙부위이며 통증성격은 압박하는듯 하기도 하며, 누르거나, 쥐어 짜거나, 숨이 막히거나, 소화불량으로 느끼기도 한다. 흉통은 육체적운동(빨리 걷거나, 뛰기)을 하거나, 층계를 오를 경우)이나 흥분, 식사 등으로 유발되며 운동을 중지하면 통증은 1~5분내에 자연히 없어진다. 대부분의 환자는 층계를 오르다가 흉통이 나타나면 더 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겨울같이 바깥날씨가 쌀 경우에 집안에서 집밖으로 나가면서 협심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흉통은 턱, 어깨, 왼쪽팔로 뻗히기도 한다. 심근경색으로 나타나는 흉통은 발생부위가 협심증과 비슷하나 통증의 정도가 더욱 심하고

호흡곤란은 밤에 심하고 누우면 더 심해져 先天性심장병경우 손가락끝에 청색증나타나

30분내지 몇시간 지속됨이 보통이며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지속된다. 심근경색증이라도 환자중 20~30%는 통증없이 발생되기도 한다.

최근 관동맥성심장병환자가 증가하며 심장병이 급사의 대부분 원인임이 알려져 흉통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흉통은 심장병으로 발생되기도 하고 흉부의 뼈나 근육계통에서 염증이나 심한 운동으로 발생되기도 하며, 위궤양, 담석증 등의 위장장애로도 발생되며, 불안신경증으로도 발생하므로 감별을 해야 한다.

호흡곤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호흡곤란

불안신경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안신경증으로 나타나는 호흡곤란은 안정시 나타남이 보통이며, 환자는 안정시 호흡곤란과 더불어 호흡을 자주 쉬게되며, 심한 경우에는 심호흡을 너무 자주함으로 손발이 저리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산보를 하여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없어진다.

급성폐부종이라고 하여 심장병환자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지며 거품이 많은 혈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위험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피로감

심장병으로 심장기능이 약해져 전신 각 장기에 혈액공급이 부족하게돼 환자는 피로감이나 허약감을 쉽게 호소하며 대부분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피로감은 아침에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활동을 할수록 심해지나, 정신적원인에 의한 피로감은 오전이나 오후 내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청색증

심장병으로 산소와 결합된 혈액이 부족하여 환원된 혈액소양이 증가함으로 나타난다. 심부전증으로 말초혈액순환이 불량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호흡곤란은 심해지면 심장내혈액이 동맥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폐나 정맥계에 울혈이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간도 붓고, 복수도 생기고 전신에 부종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면 코골, 귀, 얼굴 등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이나 심실중격에 결손이 있던지 동맥관이 개존되어 정맥혈이 동맥혈에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을 나타내며 곧보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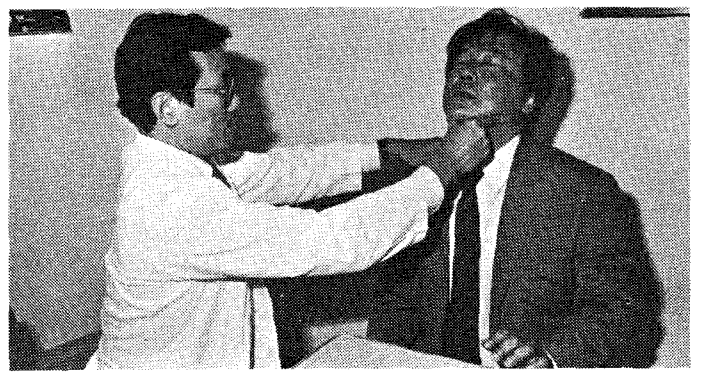
심장병

성인에서 발생하는 심장병으로는 고혈압, 관동맥성심장병, 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부정맥 등이 있으며 이들 각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매우 다양하나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 ① 흉통 ② 호흡곤란 ③ 피로감 ④ 청색증 ⑤ 전신부종 ⑥ 심계항진 ⑦ 현기증이나 실신

흉통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이나 생활방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동맥경화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장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관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관동맥심장병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흉통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발생된다. 혈액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협심증이라하며, 관상동맥이 막혀



◆ 긴장·흥분·커피·흡연·과음·운동과 약물복용 등이 심계항진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사진은記事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휴대용 혈당측정기는 환자및 일반인이 병원에는 번거로움이 없이 가정, 직장및 여행중 본인 스스로 혈당치를 측정하고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소형혈당측정기입니다.

- 특징:
 - 한방울의 혈액(血液)으로 측정(測定) 됩니다.
 - 측정범위: 0~1,000mg/dl
 - 물로 닦을 필요가 없음
 - 날짜, 회수, 혈당치가 동시 100회까지 기억 재생됨
 - 검사 비용이 적게들고 간편한 휴대가 됩니다.
 - 검사 시험지(Strip)을 냉장고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음.

제조원: **DIC Kyoto DAIICHI**
판매원: **정우양행**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24-14(경북빌딩 101호)
전화: 276-0277
276-0278

※당뇨신문

“소망”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보내실곳: “대한당뇨협회”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24-14
경북빌딩 101호
TEL: 265-9822

